

수협 탐방

<2>장흥군수협

경영개선으로 자립...어업인 복지위해 뛰다

2009년 회생불능 합병위기
부실채권 99억원 털어내고
합병위기 4년만에 흑자전환

등 자구(自求) 노력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섰다. 장흥군수협은 중앙회 기금 관리위원회로 받은 경영개선자금(무이자) 485억원을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사흥만 조합장

2010년에 30억원, 2011년에 39억원, 2012년에 30억원 등 90여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 2013년말 현재 부실채권은 4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활어 위판장에서 3억원의 위판수수료와 면세유류와 선박기자재 판매 수수료에서 6억5000만원 등 위판수수료 증가와 경비절감 등에 힘입어 10여억원 흑자를 내며, 중앙회가 발표한 90개 조합 가운데 경영개선 8위를 기록했다.

“시련 끝에 나이온다”는 말이 있듯이 장흥군수협은 이를 토대로 올해는 더욱 의욕적인 발돋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개개인 수협의 공동 발전을 위해 수산물 위판과 소비확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수 종매인 육성과 활선어 위판장 활성화 통해 위판사업을 독려한 결과, 4월 말 현재 목표 위판액 200억원 중 이미 5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출품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합병위기에 몰렸던 장흥군수협이 부실채권과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섰다. 사진은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위판장.

무산김은 장흥군수협의 자랑거리이자 효자종목이다. 수협은 산(酸)처리를 하지 않는 무산김 양식과 판매를 위해 어촌계와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삼해상사와 유통협약을 체결해 조리김 미국 수출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장흥 낚지는 물론 청정해역에서 건져 올리는 각종 해산물이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을 펴고 있다. 중간 상인의 판매마진이 조합원들에

게 돌아가도록 인터넷을 통해 소비처를 개척하고, 안정된 판로 확보 차원에서 ‘단골’상인을 유지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흥만 조합장은 “어업인의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뛰고 있다”며 “저축 생활화와 대고객 서비스 개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국민연금 부부 수급 1만1754쌍

노령연금 수급자의 10.2%...평균 51만원 받아

광주·전남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주순)에 따르면 2011년 8420쌍이던 부부수급자는 2013년 12월 기준 1만937쌍으로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현재 1만1754쌍에 달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23만명 중 10.2%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이 부부수급자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은 총 60억6156만원으로 1쌍당 평균 51만5701원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부부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광주시 남구에 사는 나모(67)씨 부부로, 한 달에 201만1060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했으며 남편은 231개월, 아내는 27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처럼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안정적인 노

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로 여성가입자와 수급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와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월 11만5000쌍에서 2011년 4월 13만4000쌍, 2012년 4월 15만5000쌍, 2013년 4월 18만8000쌍, 올해 4월 기준 19만9000쌍으로 2010년 대비 8만4000쌍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월 1189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노주순 본부장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이 가입해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된다”며 “60세 퇴직 후 평균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15~20년이 되므로 부부 합산 연금액을 높이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금고갈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

연금공단 “기금 소진땀 부과방식 전환 재원 조달”

노후 소득보장장치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기금 고갈로 파산해 노후 소득보장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국민연금 이수료 때를 때마다 많은 국민이 그런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일부는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를 주장한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 소진론이 마냥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액 1천844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두려움과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이런 기금고갈 불안을 잠재우고자 2013년 말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연금을 고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홍보 사이트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

여’란 글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한 불신을 시도했다.

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소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연금공단은 오래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그러다가 제도 성숙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 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자체로 ‘기금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잘 운영하고 있다.

부과방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지출에 상응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현 세대한테서 거둔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조선대 공대 농촌일손돕기 인력풀 가동

대촌·평동 들녘 500여명 구슬땀



지난 17일 광주시 남구 평동 배 과수원에서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학생들이 배 열매숙기 작업에 한창이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지난 17일 광주시 남구 평동 일대에 모처럼만에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다. 대학생들의 농활은 일도 아니었다. 이 날 조선대 공과대학 학생 450여명과 농협직원들은 대촌과 평동 지역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 20여 곳을 찾아 배 과수와 모판 나르기, 배 적과작업, 수박밭 짚깎기, 오이순치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광주지역본부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일손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일회성에 그친 단순 자원봉사를 넘어 주기적이고, 획기적인 농촌인력증가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보다 실적인 농촌인력증가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 고안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조선대 공과대학회는 지난 13일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와 인력풀 가동에 합의했다.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효

율적인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번 사업은 매년 농촌일손돕기에 큰 도움을 주던 군부대와 경찰인력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대거 동원됐고, 학교와 각 기관단체들도 단체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로부터 호응이 더 컸다.

이 날 봉사활동을 주도한 박광민 조선대 공과대학생회장은 “정보 부족으로 학생회 차원의 체계적인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행사에 참여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원봉사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농촌인력증가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유생촌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특별이벤트
·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올일종기소화제 첨가
· 최첨단 무균해산선호제

즉석요리
얼리치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 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